

# NAFTA 재협상 타결과 영향



## Global Market Report

# CONTENTS

## 목 차

### 요약

---

#### I. NAFTA 재협상 타결과 주요내용 / 1

---

- |   |                      |
|---|----------------------|
| 1 | 1. 배경 및 주요일지         |
| 4 | 2. NAFTA 재협상 타결 주요내용 |

#### II. 국가별 영향 및 반응 / 8

---

- |    |        |
|----|--------|
| 8  | 1. 미국  |
| 12 | 2. 캐나다 |
| 21 | 3. 멕시코 |

#### III. 향후 절차 및 전망 / 25

---

- |    |        |
|----|--------|
| 25 | 1. 미국  |
| 27 | 2. 캐나다 |
| 29 | 3. 멕시코 |

## 요약

- **트럼프 출범 후, NAFTA 조항의 현대화를 근거로 재협상을 진행하며 여러 쟁점에서 의견차로 난항을 겪다. 마-멕 양자협약에 이어 캐나다도 미국과 합의함으로써 NAFTA 타결**
  - '17년 5월, NAFTA 재협상 의사를 美 의회에 통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7차 공식협상을 거쳐, '18년 8월 27일 마-멕 양자협상 원칙적 합의, '18년 9월 30일 캐나다와도 극적 합의하며 타결
  -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NAFTA가 아닌 USMCA(US, Mexico, Canada Agreement) 새롭게 출범
  - USMCA 합의 도출로 트럼프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금년 11월 이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상이 서명하고 내년 초 이행법안 통과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
- **NAFTA 타결의 주요내용**
  - **(자동차)**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역내 부품조달 비율 인상(62.5→75%) 및 자동차 생산의 40-45%를 시간당 임금 16불 이상인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
  - **(일몰조항)** 기존에 제시됐던 5년 주기 자동 일몰조항 ⇨ 협정 체결 후 16년간 유효, 6년째 성과 평가 실시하여 갱신하는 방식으로 합의
  - **(소액물품 면세한도 확대)**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위해 캐나다는 150불, 멕시코는 117불로 인상
  - **(금융서비스)** 데이터 자유로운 이동, 거래 투명성 확보 위해 데이터 현지화 의무 조건 금지에 합의
  - **(캐나다 낙농시장)** 정부 주도의 가격 통제 및 수입쿼터 운영 중인 캐나다 유제품 시장에서 일부 유제품 쿼터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160억불 규모(캐나다 유제품 시장의 3.5%) 시장 개방
  - **(자동차 232조)** 향후 25% 관세 부과 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쿼터로 대체 자동차는 캐나다, 멕시코 모두 최대 260만대 쿼터 보장, 자동차 부품은 캐나다 324억불, 멕시코는 1,080억불까지 대미수출 가능
  - **(철강/알루미늄 232조)**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면제에는 실패, 향후 논의예정
  - **(분쟁해결절차)** 분쟁 발생 시, 공동패널 구성하여 해결하는 19조 종전대로 유지
  - **(환율조항)** 시장 환율 정책 유지, 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한 경쟁국 자국통화가치 평가절하 금지 등을 포함한 거시경제 정책 및 환율 관련 사항 신규 조항 추가
  - **(비시장경제국과의 FTA 체결조건)** 비시장경제국과의 FTA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는 체결 의사를 다른 회원국에게 3개월 전 통보하고, 이를 위반 시 USMCA는 양자 체제로 전환

## 요약

### □ 국가별 영향 및 반응 : 미국

- (전체) 원산지 규정 강화 및 수출시장 접근 강화로 美 노동자, 농민들 수혜 예상되나, 자동차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도 예상. 트럼프는 통상 정책에 대한 자신감 획득하며 대중 견제를 위한 발판 및 미중통상분쟁에 집중할 여건 마련
- (자동차) 역내부가가치 비율 인상으로 부품 가격 및 임금 상승으로 생산비용 부담 가중 가능성,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쿼터는 대미수출량 이상의 수준으로 설정되어 자동차 232조 위협 벗어남
- (섬유) 원산지 규정 강화 및 Yarn-forward 지속 시행으로 북미산 중간재 사용 독려될 것
- (철강) 관세 면제 관련 합의 도출 실패하여 농산물 관세 통한 보복 또한 유지되는 중으로 업계 피해가 지속된다는 의견 다수, 향후 규제면제 여부 불투명하나 별개로 협의될 계획이라고 밝힘

### □ 국가별 영향 및 반응 : 캐나다

- (전체) 통상 환경 불확실성 해소에는 긍정적 평가가 있으나 낙농업, 바이오 제약 등의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전망. NAFTA 재협상을 통해 일몰조항 추가, 철강 관세 면제 대상되지 못한 것 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 다수
- (자동차) 역내부가가치 비율 및 노동부가가치 기준 강화로 현지 기업들의 부담 가중될 전망이며, 역내산 철강, 알루미늄 70% 이상 사용 요건으로 한국 자동차 부품, 철강 기업도 영향 받을 가능성
- (섬유) 미국 대비 작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직접 피해 크지 않을 전망이며, 미국산 섬유, 원사, 직물 사용 증가가 예상되어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수입이 제한될 가능성 존재
-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면제 받지 못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요 확대 제한적일 것이나, 자동차 제조 시 철강 70%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항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캐나다산 철강 수요 증가 예상
- (낙농업) CPTPP 개방수준(3.25%) 보다 높은 3.5% 시장 개방으로 현지 낙농업계 타격 불가피

### □ 국가별 영향 및 반응 : 멕시코

- (전체) 노동 환경 개선 등에는 긍정적 평가, 일몰조항 추가 및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는 부정적 평가
- (자동차) 역내부가가치 비율 조건은 충족 가능하나 노동가치 비율 규정은 준수하기 어려울 전망
- (섬유) Yarn-forward의 예외규정인 관세특혜수준(TPL) 유지로 종전 수준의 수출 가능
- (철강) NAFTA 재협상에서는 얻지 못하였으나 향후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 선정을 기대 중

## I NAFTA 재협상 타결과 주요내용

### 1 배경 및 주요일지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일방적으로 NAFTA 재협상 절차에 착수
  - 트럼프, NAFTA를 '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판하며, NAFTA 재협상을 현 정부 무역정책의 지상과제로 제시
  - 2017년 5월 18일, USTR 대표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의회에 공식적으로 NAFTA 재협상 의사 통보
    - 재협상 추진의 이유로 미국의 對멕시코 및 캐나다 상품교역 불균형 해소와 함께 낙후된 일부조항의 현대화(modernization) 필요성 강조
    - \* '17년 미국의 NAFTA 역내 상품교역 적자는 1994년 NAFTA 발효 전 대비 167%가 증가(對멕시코 : 349%, 對캐나다 : -0.5%)
- 3대 쟁점을 두고 3국 합의에 난항, 미-멕시코 양자협상으로 전환
  - 미국 측은 (1)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역내가치비율 85% 상향), (2) 매 5년마다 이행평가 후 협정을 파기하는 일몰조항 삽입, (3) 국가-투자자 소송제도(ISDS)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으나,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
  - 멕시코는 대선결과에 따른 정권 이양 전인 11월 말까지 NAFTA 재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속에 미국과 양자협상에서 합의에 성공
    - 2018년 8월 27일, 미국과 멕시코는 양국 간 NAFTA 재협상에서 '원칙적 합의(Agreement in Principle)'를 이뤘다고 발표
  - 현지 언론들은 멕시코가 큰 틀에서 미국이 요구한 3대 쟁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분석
    - 자동차 관련 역내가치비율 단계적 상향조정(75%), 일몰조항제도의 부분적 도입, ISDS 적용 요건 완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 3국 합의 도출, NAFTA가 아닌 USMCA로 출범

-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와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캐나다와 협상을 진행하였고 9월 30일 캐나다와의 합의 성사로 3국 합의가 도출
  - 캐나다 측은 낙농업 시장 보호 정책 완화, 미국 측은 추후 자동차 232조 규제 발동 시 對캐나다·멕시코 규제는 관세가 아닌 쿼터로 대체하고 캐나다 측이 요구한 기존 분쟁해결 절차를 유지하기로 타협
  - 또한 3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이번 재협상 결과를 NAFTA가 아닌 US, Mexico, Canada Agreement(USMCA) 협정으로 새롭게 출범시키기로 합의

## □ USMCA 이행법안, 미 의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31일, TPA 절차에 따라 NAFTA 재협상 협정문 체결 의향서를 의회에 제출
-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및 11월 미 중간선거 후 여소야대 리스크 등으로 인해 미 의회의 USMCA 협정문 승인 난항 가능성
  - 11월 미 중간선거로 인해 다음 회기 의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될 시 의회의 USMCA 승인이 불발될 가능성 존재
  - 민주당 의원들이 견제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NAFTA 재협상 관련 對의회 통보 의무 준수 여부 및 합의 내용의 구체화 등을 요청하며 의회 승인에 제동을 걸 수 있음
  - USMCA 합의 도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주의 성향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다음 회기 의회 출범 후 내년 초 USMCA 이행법안 통과가 완료될 것이라는 평가 다수

### < NAFTA 재협상 주요 일지 >

일자	내용
2017.05.18	USTR, 의회에 NAFTA 재협상 의사 통보
2017.08.16~20	NAFTA 1차 재협상
2017.09.01~06	NAFTA 2차 재협상
2017.09.23~27	NAFTA 3차 재협상
2017.10.11~14	NAFTA 4차 재협상
2017.11.17~21	NAFTA 5차 재협상
2018.01.23~28	NAFTA 6차 재협상
2018.02.25.~03.05	NAFTA 7차 재협상
2018.08.27	USTR, 미국-멕시코 NAFTA 재협상 원칙적 예비 합의 발표
2018.08.31	미국-캐나다, NAFTA 재협상 결렬
2018.08.31	미 대통령, 의회에 '미-멕시코 무역협정' 체결 의향서 제출
2018.09.05	미국-캐나다, NAFTA 재협상 재개
2018.9.30.	미국-캐나다 NAFTA 재협상 합의 도출, USMCA 협정문 공개

## 2 NAFTA 재협상 타결 주요내용

### 가. 제조업 분야

-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련 역내 원산지 비율 규정 확대 강화
  - (역내부품조달 비율 인상) NAFTA 무관세 수혜를 위한 역내 자동차 부품조달 비율 요건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
    - \* 한미FTA의 역내 부품조달 비율은 35%, CPTPP 경우 45%
    - \*\* 철강과 알루미늄의 경우 무관세 수혜를 위한 역내 부품조달 비율을 70%로 규정
  - (노동가치 규정 신설) 자동차 생산의 40%~45%는 시간 당 임금이 최소 16달러 이상인 노동자를 통해 생산되도록 하는 규정에 합의
    - \* 자동차 교역 관련 위 3가지 신규정은 3년간의 조정 기간 후 전면 도입되며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신규정 이행계획을 밝힌 기업들에 한하여 최대 5년의 조정 기간이 허용
- (시장접근성 확대) 양국 간 상품교역 활성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완화
  -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수입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유지하고, 수출입 면허, 세금, 기타 수수료 등 부대절차 및 비용의 투명성 관련 규정 도입
  - 정보통신,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제품, 화장품 등 특정 제조업 분야별 부속서 신설에 합의하여 양국 간 규제 호환성 증진 및 교역확대 도모
- (섬유조항 신설) 역내 섬유·의류제품 생산에 이용되는 역외 원료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미국산 섬유, 원사, 천 등 섬유 제품 사용 장려

### 나. 농식품 분야

- (시장왜곡 근절) 농산물 교역확대와 규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 농산물 관련 수출보조금 금지 및 WTO의 특수농산물 긴급수입 제한 조치 사용 금지 등에 합의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거래 보장

- 과학에 기반을 둔 위생검역 기준 정립 및 양국 간 분쟁 발생 시에 대비 기술적 중재(technical consultation)를 위한 분쟁해소 장치 신설
- (신규범 정립) 농축산업 기술발전에 따른 지식재산권 제도 업데이트
  - 유전자 조작 등 첨단 농업 바이오 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규범수립에 합의하고 양국 간 정보교환 등 농업 기술발전과 교역증진에 협력
  -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도(GI) 정립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식품 제조법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한 부속서 채택에 합의
- (캐나다 낙농시장 개방) 캐나다의 자국 낙농업 보호를 위한 수입 유제품 공급물량 통제 폐지
  - 미 측은 전면적인 캐나다 낙농시장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캐나다 내 7등급으로 분류되는 일부 유제품(유단백질 농축 물, 탈지유 및 분유 등)에 대한 수입 공급물량 통제 제도만 폐지하기로 합의

[참고] 캐나다의 National Ingredients Strategy

- 무관세로 수입된 미국산 원료를 국내산으로 대체(건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기존 정책은 유제품 원료를 가격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여 쿼터와 가격을 책정하고, 등급별로 유제품 구성요소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동 신규 정책에서는 기존 5등급을 7등급으로 세분화한 뒤, 우유 단백질 농축물, 탈지분말, 유청 분말(우유의 지방과 단백질을 제거한 원재료를 가공한 것) 등을 7등급(저가)으로 분류해 자국산 제품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춤
- 또한 자국산 원료로 대체하는 치즈생산업체에는 치즈를 저장·보관하도록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 다. NAFTA 현대화

- (포괄적 지식재산권 집행)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조항을 수립하여 의약품 특허, 저작권, 인터넷 상의 카피라이트, 상표권 등 절도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 확대적용 및 기타 영업비밀 보호 강화에 합의

- 생물 의약품(바이오 로직스)의 자료독점권 인정 대상 확대 및 정보 보호 기간 10년으로 연장
- 실연(song performance)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을 최소 75년으로 연장
- (디지털교역)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무관세 및 차별적 조치 금지 원칙에 합의
  - 전자인증 및 서명 사용제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제한, 사이버 보안 협력 등 디지털교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요건에 합의
- (소액배송 면세한도) 국경 간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캐나다의 경우 배송 물품의 최소면세한도(De Minimis)를 현재 20달러에서 150달러로, 멕시코는 50달러에서 117달러로 인상하기로 합의
- (금융서비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현지화 의무요건을 금지(금융당국의 데이터 접근 가능 조건) 하는 내용에 합의
  - \* 미국이 체결한 FTA 중 최초로 금융데이터 현지화 요건 금지를 명시
- (노동·환경) 멕시코 내 노동자 단체교섭권 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항 내 관련 부속서 포함
  - 과잉어획 방지, 대기질 개선, 산림관리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도입 하는 등 포괄적인 환경보호 규범 정립

## 라. 여타 주요 합의사항

- (일몰조항) 기존에 제시됐던 5년 주기 자동 일몰조항 대신 협정 체결 후 16년간 유효, 6년째 성과 평가 실시하여 갱신하는 방식으로 합의
  - 최초 협정체결 후 16년 간 유효하되 6년이 지난 시점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양측이 합의할 경우 성과평가 시점부터 다시 16년 연장

- 양측이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잔여 10년 동안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된 시점에서부터 새롭게 16년이 연장되는 방식
- **(환율조작 금지)** USMCA 협정문 33조 ‘거시경제 정책 및 환율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환율조작 금지 규정을 본문에 추가
  - 이를 통해 미국-멕시코-캐나다는 1) 시장 환율 정책 유지, 2) 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한 경쟁적 자국 통화가치 평가절하 금지, 3) 거시경제 및 환율 변동 안정을 위한 경제 기초 여건 강화 규정 추가에 합의
  - USMCA 협정문은 기존 NAFTA 협정문 분쟁해결 관련 19조 내용을 계승함에 따라 환율조작 금지 관련 분쟁해결 발생 시 특정 USMCA 회원국의 국내 사법절차가 아닌 전문 국제 패널 설립을 통해 중재
- **(트럼프發 자동차 232조 관세 면제)** 추후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를 개시할 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규제는 관세가 아닌 쿼터로 대체
  - 자동차 232조 규제 발동 시 캐나다는 자동차의 경우 연간 최대 180만대, 부품의 경우 324억 달러, 멕시코는 자동차 260만대 부품 1,080억 달러 까지 미국에 수출 가능
    - \* 그러나 시행중인 트럼프發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부과 및 이에 대한 대미 보복 조치 관련 협상은 USMCA와 별개로 진행 중
    - \* 미국의 자동차 수입('16년말): 캐나다 200만대, 멕시코 138만대, 한국 100만대
- **(비시장경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조건)** 회원국들로 하여금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어렵게 하는 규정이 추가
  - 비시장경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는 체결 의사를 다른 USMCA 국가들에게 협상시작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통보
  - 비시장경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나머지 2개 국가는 6개월 후 USMCA를 3국이 아닌 양자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음

## II 국가별 영향 및 반응

### 1 미국

#### 가. 산업별 영향

##### □ 자동차

-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로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75%로 인상되면 부품가격과 임금 상승으로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 가중은 불가피
  - 기업들은 무리한 역내 생산 보다 2.5%에 불과한 미국의 최혜국대우 관세를 감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
- 캐나다와 멕시코는 사실상 자동차 232조 규제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평가됨.
  - 동 규제가 발동되어도, 쿼터 한도는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의 연 평균 대미 수출량 이상 수준
- NAFTA 역내 생산비중이 높은 자동차 Top 10 중에서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자동차는 없는 반면 일본 혼다의 자동차 5종이 상위 5개에 랭크
  - 미-멕시코 합의 내용에 포함된 자동차 원산지 규정 뿐 아니라 노동자 보호 규정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대체로 일본 기업은 환영하는 분위기(닛산 자동차 북미 지역 본부장)

##### □ 섬유

- 양 포워드 룰은 지속 시행될 뿐 아니라 원산지규정 강화를 통해 북미産 중간재 사용 독려
  - NAFTA 역내 생산 섬유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조공정 중 사용된 원사(실) 뿐 아니라 원사를 사용한 방적공정까지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또한 특혜관세 대상 물량 축소에 합의한 대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품목도 일정 물량까지 특혜관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섬유류 관세특혜(tariff preference level) 규정을 포함
- 반면 대부분의 의류 및 기타 완제품에 대한 USMCA 혜택 수혜는 북미産 봉제 실, 포켓 패브릭, 신축 밴드 및 코팅 패브릭이 사용된 경우에 국한

## □ 철강

- 앞서 NAFTA 재협상 체결 시 캐나다와 멕시코 산 철강은 232조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동 규제 관련 협상은 USMCA와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타결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産 철강의 규제 면제 여부는 불투명

## 나. 정부, 언론, 의회 등 반응

### □ 정부

-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세 부과를 통한 협상 레버리지 확보가 없었다면 이번 USMCA 합의 도출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통상 정책 효력을 강조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국익 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통상 협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추후 의회의 제동으로 인해 USMCA 발효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우려
-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인터넷과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 및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 관측 등을 고려해 이번 재협상은 반드시 필요했었으며, 의원들도 이번 합의 내용을 승인할 것이라고 전망

- 그러나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반감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합의 내용 승인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비판
- 피듀 농무장관은 캐나다과 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규제 면제 관련 합의 도출이 없어 대미 농산품 관세를 통한 보복도 지속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지속된다는 업계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힘
- 또한 통상 사안 관련 미 농업 지대 의원들의 영향력이 비교적 강력하며 이들은 USMCA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의회의 USMCA 승인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

## □ 언론

- **(CNN)** 예상과 달리 9월 내 3국 합의를 도출한 트럼프 대통령은 벼랑 끝 전술 성공을 자축할 것이며 11월 미 중간 선거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통상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도
- **(Washington Post)** USMCA와 NAFTA 간의 실질적 차이는 미미할 수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평가
  - USMCA가 추후 이행되면 원산지 규정 강화와 수출시장 접근 강화로 인해 미 노동조합과 농민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나 자동차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고 보도
  - 정치적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USMCA 합의 도출로 인해 NAFTA를 개선시키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켰다고 주장할 것이며, 현 행정부는 이제 최대 통상 분쟁 대상국인 중국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분석
- **(Financial Post)** 트럼프 행정부는 USMCA를 통해 대중 견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분석
  - USMCA 국가들의 비시장경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추진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하였고 캐나다와 멕시코 포함, 동맹국들을 대중 견제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보도

□ 의회

- 민주당 의원들은 USMCA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 중
  - 철강·알루미늄 232조 규제 관련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
  - 그러나 양당 지도부 의원들 대다수는 긍정적으로 평가 중

**〈주요 의원의 USMCA 합의에 대한 발언〉**

의원	소속정당/위원회	발언 및 반응
Orin Hatch	공화당 / 상원 재무위원장	이번 3자 합의 도출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NAFTA로 인한 경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
John Cornyn	공화당 / 원내 총무	USMCA 승인 관련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TPA 법에 따라 진행될 승인 절차에 대한 민주당 측의 비판을 우려
Kevin Brady	민주당 / 하원 세입위원장	이번 합의 도출은 NAFTA를 근대화 시키고 이로 인한 승자는 미 근로자 및 농민들이라고 찬사
Pat Leahy	민주당 / 상원부의장	이번 합의 내용이 법률화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주장
Richard Neal	민주당 / 하원세입위	까다로운 기준을 도입해 이번 USMCA 합의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회의 승인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평가

## 2 캐나다

### 가. 산업별 영향

#### □ 자동차·부품

- 무관세 적용을 위한 조건인 역내 부품조달 비율이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조정되면서 일부 캐나다 자동차·부품 기업들은 협력 업체 수를 축소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동차 산업은 캐나다의 주력 산업인 만큼 현지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
  - 역내부가가치 기준, 노동부가가치 기준 등이 강화돼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됨
  - 또한 역내산 철강·알루미늄을 70%이상 사용해야하는 요건이 부가돼 한국 자동차 부품, 철강 기업 등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 존재
- 특히 캐나다에 소재한 일본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위치해있는 일본의 도요타, 혼다 생산 공장의 경우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어 역내부가가치 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최저임금 요건이 추가되면서 미국과 캐나다 내 자동차 부품 업체의 가격경쟁력은 멕시코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 섬유

- 캐나다의 섬유산업 규모는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작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섬유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

〈 자동차·부품, 섬유 관련 바이어·투자자 반응 〉

산업	기업	내용
자동차·부품	M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MCA가 실질적으로 캐나다산 자동차부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임</li> <li>- 최근 협력업체를 감축하는 과정 중에 있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li> </ul>
	M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MCA로 인해 한국 기업에게 특별한 이득이나 혜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li> <li>- 한국에서 수입하는 대다수의 품목은 기술력보다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간재 위주의 품목임. 따라서 이와 같은 공급업체를 새로 발굴하기 보다는 기존 공급업체와 협력을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접근할 예정</li> </ul>
	N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FTA 재협상 결과가 캐나다 자동차·부품 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 많은 현지 업체들이 올 초부터 숨죽이고 재협상 과정을 지켜봐온 상황</li> <li>- 특히 GM, Ford, FCA와 같은 미국 원청사 측도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주를 잠정 중단하거나 발주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사 또한 올해 발주량 감소를 체감 중</li> <li>- 자동차 부품 산업은 원청사 발주량 감소로 한동안 긴장감 속에 주춤할 것으로 전망</li> </ul>
	V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FTA 재협상의 주요 안건인 역내 부품조달 비율 인상 및 노동가치 비율 규정에 대해서 인지하고는 있으나, 동 사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한 부품을 캐나다 현지에서 추가 가공 및 조립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li> <li>- USMCA보다 미국-캐나다 간 관세 전쟁이 더 시급한 문제임</li> <li>- 미국의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및 캐나다의 보복 관세 부과 상황이, 철강 소재의 자동차 부품을 미국과 수출·수입하고 있는 동사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임</li> </ul>
섬유	S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섬유·원단 전문 유통업체인 동사는 현재 NAFTA 재협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음</li> <li>- USMCA가 체결 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영향 및 전망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움.</li> <li>- 현재 다수의 한국 업체로부터 원단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역외 수입품 관련 규제가 우려됨</li> </ul>
	N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이탈리아와 영국에서 수입하나, 일부 섬유는 미국으로부터 수입 중</li> <li>- USMCA로 인해 제품 수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변동 사항을 분석하고 내부적으로 대안을 모색해나갈 예정</li> </ul>

자료: KOTRA 토론토 무역관 바이어·투자자 인터뷰 결과

- 신규 협정에는 역외산 원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 미국산 섬유, 원사, 직물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중국, 인도네시아 등 저가 섬유 수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 철강 및 전기·전자

- 자동차 제조 시 필요한 철강, 알루미늄, 유리 등의 70%를 북미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캐나다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반면 NAFTA 재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하기 시작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수요 확대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 부과 중
  - 이에 따른 보복조치로서 캐나다도 2018년 7월 1일부로 시행한 미국산 철강(25%), 알루미늄(10%), 일부 소비재(1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할 예정
  -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협의하여 별도의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캐나다의 전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캐나다 철강업계 우려 증가
  - '17년 기준, 생산된 철강의 50%, 알루미늄의 84%가 미국으로 수출
  - 이에 따라, 캐나다의 자국 철강 산업 보호기조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지난 몇 년간 아시아 및 유럽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 또한 철강의 많은 부분을 캐나다를 통해 수입하고 있어 양국 간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철강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전망

- 캐나다는 '17년 기준 미국의 철강 수입시장에서 수입점유율 17%로 1위를 차지
- 미국은 주로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으로부터 반제품(Semi-finished) 철강을 수입 중
-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북미산 제품은 기존대로 무관세를 유지해 NAFTA 재협상 타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철강, 전기·전자 관련 바이어 반응 >**

산 업	기 업	내 용
철강	A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큰 고객은 자동차 제조업체로 USMCA로 역내 조달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국산 철강의 북미지역 수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li> <li>- 철강 산업은 현재 USMCA 타결보다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셰이프가드 등에 더 관심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li> </ul>
전기·전자	Q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용 냉장기기를 제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USMCA를 분석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li> <li>- 한국으로부터 알루미늄 강판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 규제에 관심이 있으며,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 규제를 대비하여 공급사와 재협상 중에 있음</li> </ul>

자료: KOTRA 토론토 무역관 바이어·투자가 인터뷰 결과

**□ 식품**

- NAFTA 재협상 타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 수입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 식품 시장의 경우 미국-캐나다 간 통상 분쟁으로 소비자물가 인상이 불가피
- 통상 분쟁 속 관세율 변화에 따라 타 국가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NAFTA 재협상 난항으로 최대 12.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일부 제품은 한국산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모색하는 등 변화 양상

### 〈 식품 관련 바이어 반응 〉

산 업	기 업	내 용
식품	K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에서 수입 중인 한국산 가공식품을 비롯해 대미 수입 품목이 많기 때문에 식품 관세 인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음</li> <li>- 설사 관세 문제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주요 취급 품목인 미국산 곡물류와 미국을 통해 우회 수입하는 한국산 가공식품(육류 포함 제품) 구매 중단이 어려움. 따라서 관세로 인한 소비자가격 인상 및 매출 감소가 우려됨</li> </ul>
	R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로부터 직접 수입하고 있어 USMCA가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li> <li>- 당사의 고객사인 식품 도소매업체들의 경우 캐나다 필수 인증을 갖춘 제품에 한하여 미국산 대비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높은 아시아산 제품 발굴에 매우 긍정적인 추세임</li> </ul>
	C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산 육류, 한국산 가공식품과 일본 간장(미국에서 제조)을 수입하고 있으며, 2달 전부터 통상분쟁으로 수입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돼 내부회의를 거쳐 일본의 K사 간장 수입을 중단하고 한국산 S사의 간장 직수입을 계획하고 있음</li> <li>- 미국산 식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로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나, 한-캐 FTA를 활용해 기존 미국산 수입품을 대체 가능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음</li> <li>- 따라서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음</li> </ul>
	L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식품 유통사로 한국에서 직수입이 불가능한 육류가공식품 소량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음</li> <li>- 무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로부터 수입할 만큼 수량이 높지 않고, 육류가 포함되어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이 한정되어 있어 기존의 미국 거래선을 변경하지는 않을 계획임</li> </ul>

자료: KOTRA 토론토 무역관 바이어·투자가 인터뷰 결과

## □ 낙농업

-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낙농업 시장의 3.5%를 개방할 예정
  - 미국과 멕시코산 닭, 터키, 달걀 등 일부 유제품은 수입쿼터가 확대돼 연간 C\$160억(약 14조 원) 규모의 관세 면제 효과가 예상

- 이번 협정은 지난 2018년 3월 체결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시장 개방 수준(3.25%)보다 소폭 높음
  - \* 캐나다는 '60년대부터 자국 낙농업 보호정책 차원에서 수입산 유제품 공급물량을 통제하고 있으며, 한-캐나다 FTA에서 유제품은 양허제외 대상으로 한국산 유제품은 현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음
- 또한 캐나다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해 온 자국산 치즈용 우유(Ultra-filtered milk) 가격을 인하하는 육성정책(National Ingredients Strategy)을 폐지하기로 합의
- 향후 캐나다 내 해외 유제품 수입·유통이 확대돼 현지 낙농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 캐나다 양계협회(Canada Chicken Farmers Association)는 낙농업이 집중된 퀘벡 주와 온타리오 주의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전함
- 현재 캐나다 내 유통 중인 유제품 중 90% 이상은 캐나다산 제품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제품 판매가격 하락을 기대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캐나다와 미국의 경제 규모를 비교했을 때 미국 낙농업계의 수혜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

## □ 임업

- 캐나다의 요구대로 제19장 분쟁해결절차 조항을 유지함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간 목재 무역협정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1980년대부터 시작된 양국 간 연목재(Softwood lumber) 분쟁은 2006년 10월 연목재 무역협정(Softwood Lumber Agreement)\* 체결로 해결되는 듯 보였으나, 2016년 10월 협정이 만료

- \* Softwood Lumber Agreement: 양국 간 지역별 수출쿼터와 관세율을 협의해 목재 가격 안정을 도모한 협정
- 연목재 무역협정 만료 후 캐나다는 관련 분쟁 발생 때마다 NAFTA 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캐나다 승소로 이어진 바 있음
  - NAFTA 중재위원회는 WTO 보다 제소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최종 판정까지 소요기간이 짧은 편
  - 중재위원회 심사 결과 패소 시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을 즉시 철회해야 함
- 한편 미국은 2017년 12월 7월부터 캐나다산 연목재에 27%의 반덤핑 관세 부과 중
  - 이에 따라 캐나다의 대미 목재 수출량은 감소하는 추세
  - 캐나다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목재를 수출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 노력 중

## 나. 정부, 언론, 의회 등 반응

### □ 캐나다 정부, USMCA 체결로 향후 낙관적인 시장 전망

-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0월 1일 각료회의에서 ‘오늘은 캐나다에 좋은 날’이라며 소감을 밝힘
  - 트뤼도 총리는 ‘우리가 도달한 원칙은 캐나다 기업, 노동자, 가족에게 유리하다’며 ‘USMCA가 실행되면 북미시장에서의 무역은 현대화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평가
  - 또한 북미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

-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부 장관은 USMCA에 대해 ‘캐나다 노동자, 농부, 기업들에게 자유로운 시장과 더욱 공정한 무역, 강력한 경제 성장을 가져올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라고 평가
  - 또한, USMCA가 중산층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임

#### □ 주요 언론, USMCA에 대한 각 업계의 반대 예상

- 주요 언론 매체들은 캐나다가 미국이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한 30일 밤 12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으나 3국의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았다는 점을 지적
- **(Toronto Star)** 특히 독점 기간 연장에 따른 반대 예상
  - USMCA에 따라 캐나다의 바이오 제약 분야 특히 독점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이로 인해 협정 이후 캐나다 생의약품 가격이 인상되고 복제약품 (Generic) 업계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측
    - \* 멕시코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미국은 기존 12년에서 2년이 단축
- **(National Post)** USMCA가 캐나다 낙농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지적
  - USMCA 합의안에 따르면 캐나다는 낙농업 시장의 3.5%를 미국과 멕시코의 생산품으로 채워야 함
  - 캐나다 낙농업 단체(Dairy Farmers of Canada)는 ‘USMCA가 22만명의 캐나다 낙농업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공식 성명을 발표

#### □ 캐나다 정·재계, USMCA 강력 비난

- 제1야당인 연방 보수당의 앤드류 쉬어 대표는 캐나다가 미국의 양보를 얻어낸 핵심 분야가 없음을 비난

- 캐나다가 NAFTA 재협상을 통해 일몰조항, 철강·알루미늄 관세라는 짐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
  - 또한 제19조 분쟁처리절차 조항은 이미 존재했던 조항일 뿐이라고 덧붙임
  - 나아가 자유당 정부가 미국-캐나다 연목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
- 현 집권당인 자유당보다 더 진보적인 신민당(NDP, New Democratic Party)의 재그밋 싱 대표는 '캐나다가 NAFTA보다 더 나쁜 협정을 체결했다'고 비난
    - 자유당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원주민 권리, 성평등, 환경보호 강화 조항 신설 실패를 지적
    - 또한 캐나다 낙농업시장 개방을 언급하며 신민당이었다면 다르게 협의했을 것이라고 주장
- 진보보수당 소속의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 총리는 10월 1일 캐나다 낙농업 시장 개방과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 성명 발표
    - 온타리오 주정부는 NAFTA 재협상 기간 동안 온타리오 주의 낙농업,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산업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옴
    - 더그 포드 주총리는 향후 온타리오 주 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낙농업 주요 관계자들과 USMCA의 영향을 논의할 계획

### 3 멕시코

#### 가. 산업별 영향

##### □ 자동차

- 멕시코 자동차 업계, 역내 부품조달 비율 인상으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고임금 조건은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멕시코 자동차협회(AMIA)에 따르면 멕시코 내 생산하는 차종의 역내 부품 조달 비율 중 이미 역내 부품조달 비율을 충족한 차종도 상당수 있으며, 충족하지 못한 차종도 75%까지 인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고임금 조건을 만족한 비(非) 미국산 차종은 없으며 승용차의 경우 40%, 중형 트럭의 경우 45%에 근접한 차종도 존재하지 않음
- 완성차 업체의 경우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나 자동차 부품업체는 상황에 따라 위기에 직면
  - 완성차 업체는 필요 부품을 역내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무관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납부해야하는 관세를 판매가에 반영 가능
  - 하지만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에서 부품 교체를 단행하게 되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 존재
- 자동차 수출쿼터가 확정됨에 따라 자동차 수출량 정체 가능성
  - 미국이 멕시코의 자동차 수출쿼터를 260만대로 확정하면서 멕시코 對 미국 자동차 수출량은 수출 쿼터에서 정체 예상
  - 이로 인해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량을 늘려왔던 기업들은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판매량을 늘려 추가 생산을 소화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부품 수출쿼터는 1,080억 달러로 수출쿼터에 따른 영향은 미미

## □ 철강

- 철강 분야는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
  - 美 의회에서도 NAFTA 재협상이 타결되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멕시코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한 25%, 10% 관세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협정문 서명 전까지만 일시 면제되면서 향후 60일간 추가 협상 기대
  - 하지만 이와 별개로 멕시코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반 수입관세를 인상하였기 때문에 멕시코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던 기업들은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 존재

## □ 섬유·의류

- 섬유산업은 미국 섬유산업연합회(NCTO)의 요청 사항과는 다르게 관세특혜수준(TPL)\*이 종전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외국 섬유기업은 이전 수준의 제한적 수출 가능
    - 멕시코는 면 또는 인조섬유 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45백만 제곱미터까지 모(毛) 제품은 연간 7백만 제곱미터까지 TPL 적용
- \* 관세특혜수준(Tariff preference level) : 안 포워드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회원국 간 합의한 물량만큼 안에서 특정 조건하에서 특별관세 혜택을 적용해주는 혜택으로 협정 미체결국은 동 조항을 활용해 회원국에 섬유 원소재, 중간재를 수출할 수 있음

## □ 농산물 분야

- 농산물 분야에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
  - 농산물 분야에서만큼은 멕시코에서 주장한대로 농산물 무관세를 유지하고 미국 농산물 수확시기에 수입을 일시 중단하는 한시적 수입제한(Seasonality)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
  - 또한 멕시코 대표 주류 테킬라, 메스칼의 전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으로부터 특산물로 인정받으며 전체 수출량 증가 기대

## 나. 정부, 언론, 의회 등 반응

### □ 멕시코 정부, USMCA 협상 결과에 만족

- 멕시코 정부는 USMCA는 3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협정임을 발표
  - 특히 멕시코 입장에서는 지난 1년간 존재했던 시장 내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USMCA는 성공적인 협정(멕시코 경제부, 외교부 장관)
- 엔리케 페냐 니에토 현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성공적인 NAFTA 현대화로 '윈-윈-윈'임을 언급
  - 무역과 투자뿐만 아니라 기술교류, 노동여건 개선 등의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 이로써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임기를 하루 앞두고 새로운 협정문에 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이 외에도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번 협정으로 멕시코에게 무역 뿐만 아니라 투자가 증가해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가스타논 멕시코 경영자협회(CCE) 대표는 수출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주요언론은 NAFTA 비해 손해 우려

- (**El Financiero**) USMCA 합의로 인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향후 멕시코 시장 내 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조항별로 비교를 해보면 NAFTA의 조건들이 멕시코에 더 유리했다고 평가
- (**Financial Times**) 노동환경 개선 등의 내용은 이전 협정에 없었던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하나, 대부분의 내용은 NAFTA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일몰기간(16년) 조항 삽입,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는 멕시코에 손해로 분석

## □ 멕시코 의회 반응 : 新·舊 여당은 만족, 야당은 불만

## 〈주요 의원의 미-멕시코 양자 합의에 대한 발언〉

의 원	소속정당	발언 및 반응
Ricardo Monreal	국가재건당 (Morena)	USMCA의 조항들을 2달 내에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며 유보적 반응
Héctor Vasconcelos	국가재건당 (Morena)	USMCA는 그 어떤 협정보다도 성공적인 협정임을 언급하며 차기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정확한 절차, 세부내용이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멕시코에 이득이 되는 협정임을 시사
Gustavo Madero	국가행동당 (PAN)	USMCA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의 분야에서 불이익이 있음을 언급하며 손해밖에 없는 협정이라고 강하게 비판
Verónica García	제도혁명당 (PRI)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한 만족할만한 13개월 협상의 결과임을 자평

### Ⅲ 향후 절차 및 전망

#### 1 미국

- 미국의 경우, 협상 결과 발효 위해서는 의회 비준 절차 필수
  - TPA법에 의거하여 협정서명 90일 전까지 서명의사를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이전까지(9.30) 의회에 협정문을 공개 제출해야 하는 일정
    - 협정문 서명 후 정부는 이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제출 후 90일 이내 상하원의 비준 표결이 실시
    - 미 의회가 협정문 비준을 통해 국내 이행법 수정을 완료하면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협정을 발효하게 됨
  - 미국은 11월 중간선거 후 12월 초 휴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NAFTA 재협상 비준표결은 2019년 1월에 개원하는 차기 의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짐
- 11월 중간선거가 NAFTA 재협상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
  - TPA 법은 본질적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과 같아 TPA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판정은 법정이 아니라 상·하원 다수당 의원들이 판정하게 되어있음. 즉 TPA 일정 준수 또는 3자가 아닌 미-멕시코 양자협정 추진은 의회의 재량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사안
    - 중간선거 후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면, 의회는 행정부가 희망하는 방식대로 NAFTA 재협상을 허용할 가능성
-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 트럼프, 대중 견제를 필두로 강경 통상 정책 지속 추진 예측
  - 세계개혁, 한미 FTA 개정 협상 서명, 대중 관세 부과 개시에 이어

- 3자 체제로 NAFTA 재협상을 도출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 경제 호황에 힘입어 '아메리카 퍼스트' 통상 정책을 지속 추진 예측
- 금번 USMCA 합의 도출은 관세 부과를 통한 협상 레버리지 확보의 효력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며 매과 통상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미 경제 호황이 지속되는 한, 강경 통상 정책을 현 행정부의 정치적 입지 강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으로 예측

## 2 캐나다

### □ 미-캐 간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캐나다가 자존심은 지켜냈다는 평가

- 당초 미국, 캐나다 간 협상은 낙농업 시장 개방, 제19장 분쟁해결 절차 조항 존폐 여부 등 두 가지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여 난항 예상
  - \* 2018년 9월 말 뉴욕에서 개최된 UN총회에서 美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진 바 있음
- 대부분의 현지 언론들은 협상 마감기한인 10월 1일 전까지 재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 \* 혁신과학경제개발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기한 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양국 간 비밀협상(closed-door negotiation)이 긴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캐나다는 자국 낙농업 시장의 3.5%를 개방하고, 육성정책(National Ingredients Strategy)을 폐지하는 수준으로 방어에 성공하였으나 현재 낙농업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
- 캐나다가 사활을 걸었던 제19장 분쟁해결절차 조항은 기존대로 유지된 것은 미국이 12월 1일 전까지 3국간 협정 서명을 완료하기 위해 캐나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
- 한편 전반적으로 NAFTA 재협상의 주요 내용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합의된 부분이 많아 비판 의견 존재

### □ 통상 불확실성 견어내고, 수출 안정 및 투자심리 개선될 전망

- 현 집권당인 자유당은 의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어 큰 무리 없이 협상 내용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캐나다와 미국은 경제 전반에 걸쳐 유사성이 높고, 공급망

(Supply chain)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NAFTA 타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

- 캐나다는 미국 중서부 '제조업 벨트'를 포함한 35개 주의 가장 큰 교역국으로 미국의 900만개 일자리와도 밀접한 상관 관계 존재
- 또한 멕시코와는 달리 캐나다는 미국과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약 40여개로, 판매, 물류, 운송 등 내수 및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 USMCA 타결 영향은 미미할 전망

- 멕시코와 달리 캐나다는 우리 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소재·부품을 수입하여 가공·조립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매우 적음
- 한국산 자동차 부품은 주로 캐나다 대형 부품업체(1·2차 벤더)에 납품 후 미국 Big3로 수출되는데, USMCA 발효 시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에 따른 한국산 부품의 경쟁력 약화 우려

## □ 아시아, 남미 등 수출다변화 가속화 예상

○ USMCA는 사실상 자유무역보다는 미국의 보호무역 색채가 짙어진 경향이 강해 캐나다는 앞으로 교역국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캐나다는 높은 대미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00년대부터 아시아·태평양, 유럽과의 자유무역 확대를 꾀하고 있음
- 중국과의 FTA 협상 논의를 검토 중이며, 2018년 3월 MERCOSUR와 FTA 협상에 착수

\*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캐나다의 가장 큰 교역국

○ 중국과의 FTA를 검토 중인 캐나다 입장에서 USMCA의 신규 조항인 '비시장경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조건'은 향후 논란의 여지가 존재

\* Article 32.10: Exceptions and General Provisions

-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조치로 풀이

### 3 | 멕시코

#### □ 멕시코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견고한 입지 구축

- 멕시코는 NAFTA를 통한 무관세 혜택 덕분에 글로벌 생산기지로 성장, 금번 USMCA 체결로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전망
  - 더불어, USMCA를 통해 反중국 구도를 형성하며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멕시코로 이전할 가능성도 존재
- 다만 현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12월 1일인 것을 고려했을 때, 反트럼프 좌파 성향의 차기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전 정권이 합의한 협정문에 서명할지 여부는 불확실

[끝]

## 작 성 자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토론토무역관 원유정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용주
- 통상지원팀 김미옥

Global Market Report 18-027

## NAFTA 재협상 타결과 영향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8년 10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문 의 처 | 통상지원팀  
(02-3460-3388)  
I S B N | 979-11-6097-780-6  
(95320)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 Global Market Report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